

# 저유가에도 하이브리드카 '잘 나가네'

### 지난달 7454대 판매 사상 최대 기록 기아차 '니로' 단일모델 월 최다판매 렉서스 판매 호조 수입차 시장 변화

최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달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국내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기아자동차 니로가 하이브리드카 단일 모델로는 월 기준 최다 판매를 기록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카 대중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국산차 6060대, 수입차 1394대 등 총 7454대였다. 이는 역대 월간 기준 최다 판매 기록으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5157대를 크게 뛰어넘으며 처음으로 7000대 판매 고지를 돌파했다.

국산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2009년 현대기아차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포르테 하이브리드를 각각 선보인 이후 지난달 처음으로 월간 판매 6000대를 넘었으며 수입차는 지난해 12월 1487대에 이어 두번째 많은 하이브리드카 판매고를 보였다.

지난 4월 수입차의 전체 판매 대비 하이브리드카 비중은 7.8%로 2006년 수입 하이브리드 모델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6년 수입 하이브리드카 전체 판매 중 디젤 비중이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한 셈이다.

지난달 국내 하이브리드카 판매 급증의 일등공신은 소형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니로였다.

니로는 지난 4월 총 2440대가 판매돼 국산 및 수입차 통틀어 단일 하이브리드 모델로는 월간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2012년 12월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2143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니로는 SUV의 실용성에 하이브리드의 경제성을 결합해 최근 누적계약이 5000대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니로가 향후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전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하이브리드카 단일모델로는 월 최다 판매를 기록한 기아차 '니로'

평가다. 실제 니로가 최다 판매를 기록한 지난달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각각 전월 대비 144%, 127% 판매가 급증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달 판매가 급락한 폴크스바겐의 영향으로 수입차 전체 판매 중 디젤 비중이 63.5%로 전년 동월 대비 0.8% 포인트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카는 급증했다.

하이브리드카인 렉서스 ES300h가 지난달 404대가 판매돼 월간 베스트셀링 5위, 신형 프리우스는 358대로 8위를 기록하며 두 모델이 전체 판매를 이끌었다.

이같은 판매 호조에 힘입어 국산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올해 들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2% 급증한 1만7951대로 종전 최고인 지난해 판매 3만8803대를 넘어 올해 연

간 판매 신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니로의 판매 추이에 따라 연간 6만대 판매를 넘어 7만대까지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저유가 상황에서 국내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국산 및 수입차 할 것 없이 다양한 신모델들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GM 또한 최근 인기를 얻는 말리부 하이브리드 모델을 올해 여름에 선보인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니로가 큰 인기를 끌며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면서 "니로가 다른 하이브리드카 모델의 판매까지 덩달아 끌어올리며 친환경차 시장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 일본車 신뢰도 추락

### 미쓰비시 연비 조작 이어 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조작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가 연비 조작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국내에서는 닛산 수입차의 배기가스 조작 파문에 휩싸였다. 그동안 최고 품질의 대명사로 불리던 일본 수입차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콜 및 보상 후폭풍을 맞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다만, 한국닛산의 경우 폴크스바겐그룹처럼 특정 엔진 차량의 모델들이 다 걸린 게 아니라 '캐시카이'라는 1개 차종만 적발돼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한국닛산 측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절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판매 대수는 많지 않지만, 이번 배기가스 조작 파문으로 한국닛산을 포함한 일본 수입차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한국닛산을 포함해 도요타, 혼다 등이 수입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차에 밀려 판매가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닛산은 올해 1~4월 1816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2.46%로 수입차 10위권 수준이다. 앞서 미쓰비시 자동차는 최근 일본에서 자사 생산 차량의 연비 테스트 결과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조작을 거쳐 판매한 자동차 수는 자사의 'eK 왜건'과 'eK 스페이스', 닛산자동차용으로 생산한 '데이즈'와 '데이즈 룩스' 등 경차 4종에 걸쳐 지난달까지 총 6만 5000대에 달한다. 조작이 시작된 시기는 2013년 6월이었다.

다행히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는 한국닛산 '캐시카이'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들은 실제 인증 기준 이내로 판매받아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연합뉴스

# 현대차 엑센트 美 소형차시장 5년만에 1위 탈환

### 지난달 1만2933대 판매

현대차 엑센트가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5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엑센트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총 1만2933대가 판매돼 9165대에 그친 닛산 베르사를 제치고 소형 차급 1위에 올랐다.

이는 엑센트가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1위를 차지한 2011년 7월 이후 57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엑센트는 당시 신형 모델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6천938대 판매로 소형차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엑센트 판매량은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전체 소형차 4만3709대 중 29.6%를 차지하는 등 소형 차급 내 점유율에서도 다른 경쟁 차종을 압도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엑센트 모델은 출시된 지 5년 지났다는 점에서 이번 1위 등극은 의외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렌터카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법인 판매가 많이 늘어난 데다 현지 딜러들에게 제공하는 엑센트 차종의 판매 장려금(인센티브)을 소폭 올린 정책도 판매량 확대에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는 엑센트를 비롯해 기아차 프라이드, 닛산 베르사, 포드 피에스타, 혼다 피트, 쉐보레 소닉, 도요타 아리스 등이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치열한 판매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중 베르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차급 내 판매 1위 자리를 지키며 최강자로 군림해왔다. /연합뉴스

# 기아자동차-임흥길휴먼재단 네팔 오지마을 학교짓기 협약

기아자동차가 임흥길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오지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는다. 기아차는 지난 13일 양재동 본사에서 기아차 박병운 전무, 임흥길휴먼재단 임흥길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식을 했다.

기아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히말라야 산간 오지 지역에 16개의 학교를 신축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임흥길휴먼재단의 '휴먼스쿨 프로젝트' 사업을 후원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휴먼스쿨 건립사업을 통해 히말라야 산간 지역의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 나가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13일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기아차 박병운 전무, 임흥길휴먼재단 임흥길 상임이사 등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아자동차-임흥길휴먼재단 업무제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가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